

제 7 회 동남아시아 성균한글백일장

접수번호: 2020-SA120131

한글 성명: 음우엔 레 포잉 마이

오늘은 날씨가 좋았다. 날씨가 좋아서
기분을 고화할 겸 장성 강릉도 연으려
고 나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등산했
다. 등산을 하면서 나무의 화기
차운 초록색, 내 얼굴을 스쳐간 따듯한
노란 햇빛, 새가 부드럽게 부른 소의
등이 모두의 자연의 아름다움을 느꼈
다. 이제야 자연이 얼마나 아름다운지
알게 되었다. 자연이 우물췌 나를 배
려한 것인 것 같다. 등산을 할 때는
친구와 많은 이야기를 나눴다. 제 우리
제각각의 성격이 뚜렷하고 다르지만 서
로의 입장에서 생각 해 주며 서로를 배려
했다. 덕분에 많은 깊은 이야기를 나누
는 수 있었다.

자연의 배려, 사람들 간의 배려, ... 결국
배려라는 것은 무엇인가? 배려란 마음을
열리고 어떤 것에 관심을 가져 도와주
는 것을 말한다. 자연은 사람을 배려하
며 또 사람을 자연을 배려하는 것 그

제 7 회 동남아시아 성균관글백일장

접수번호: 2020-SA120131

한글 성명: 응우엔 레 포영 마이

리고 사람을 서로를 배려하는 것도 있
 다. 배려에 한도가 없는 만큼 배려하는 함
 상 바랄지 하고 자연도 사람도 모든 것에
 소중한 것이다.
 자연은 수천 년부터 인간을 도와주었
 다. 식물, 짐, 물, 공, 광산 등 우리가
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은 모두 자연에서
 받은 선물이다. 자연은 그만큼 우리를
 배려해 왔다. 그러나 우리는 가끔 그
 은혜를 잊고 살아가 버렸다. 인간은 자
 연의 배려에 감사한다는 선물로 보답하
 지 않았으며 대신에 무분별한 벌목, 무
 분별한 야생동물 포획 그리고 에너지
 과잉 사용, 플라스틱의 큰 배플량으로
 보답하여 자연을 많이 파괴했다. 그렇기
 때문에 자연이 ~~많은~~ 매년 자연재해 도
 는 최근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위
 한테 화를 냈다. 우리도 그 때문에
 피해를 많이 입었다. 따라서 우리뿐 자
 연이 우리를 태려 했던 것처럼 자연을

제 7 회 동남아시아 성균관글백일장

접수번호: 2020-SA120131

한글 성명: 응우옌 레 프엉 마이

배려 하면 자연에게서 재해 말고 풍요와
 여유로 보답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인간
 과 자연이 평화롭게 살 수 있지 않을까
 싶다. 일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고 나
 무를 심는 것과 같은 작고 누익나 할
 수 있는 행동을 바로 자연에게 배려심
 을 보여주는 것이다. 물론 환경보호는
 쉬운 일이 아니다. 환경을 보호하고 살
 리는 것에 개인의 노력뿐만 아니라 많
 은 나라의 교육과 노력이 필요하다.
 배려하는 자연과 인간의 관계뿐만 아니라
 사랑간의 관계에도 소중하고 필수적인
 것이다. 코로나 불황이 발생하여 사회적
 거리두기 시작한 후, 우리의 화기라고
 배르레 돌아갔던 삶은 점점 중요해지고
 느껴졌다. ~~나한테는~~ 이 것은 우리 삶과
 인생을 돌아볼 기회라고 생각한 다. 전 전
 히 걸어야 많은 것을 볼 수 있다는
 말이 있듯이 사회적 거리두기 덕분에
 우리 세계에서 발생하고 있는 문제를

제 7 회 동남아시아 성균관글백일장

접수번호: 2020-SA120131

한글 성명: 음우엔레 프영 마이

알게 되었다. 확실한 것은 인간이 사전
수전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. 폭풍로 나
바이러스 전염병이 세계적으로 터진 탈
에 많은 어려운 국가에서 경제난가 일
어나서 결과로 속 많은 사람들에게 피
해를 주고 죽이기도 하는 기근이 일어
났다. 지금 이 상황에서 제일 적당한
해결 방안은 배려가 아닐까 싶다. 기근
에서 벗어나는 것은 한 나라의 노력으
로만 해 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많
은 나라의 교류가 필요하다. 교류의 중요
점이야말로 배려다. 배려가 있어야 우리
세계는 더 아름답고 평화롭게 만들 수
있다.

자연은 숲, 꽃, 나무, 따뜻한 노란 햇
빛 그리고 새의 부들부들 소리로 우리
를 배려하는 것처럼 우리 똑같이 자연
을 배려해야 한다. 우리는 친구나 가족
들과의 자이를 이해해주고 배려하는 것
처럼 세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

제 7 회 동남아시아 성균한글백일장

접수번호: 2020-SA120131

한글 성명: 음우엔레 포잉 마이

람을 배려해야 한다. 그 래야 재해가 아
니 풍요와 지유를 받을 수 있고 죽음
과 전쟁이 아닌 평화를 받을 수 있다.